

#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34권 4호 (2021년 12월)



##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 목 차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둔 초산모의 그림과 행복감의 관계: 삶의 의미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	박주하, 배유진, 양수진
유치원 아동의 형태소인식과 한글 읽기 및 쓰기와와의 관계 .....	김기에, 조중열, 김봉희
어머니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	김예진, 이동귀
유아기 일상의 실행기능 척도(REEF)의 타당화 연구 .....	권두리, 신나나
학령전기 아동의 내집단 배제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	박주향, 진경선
초등 4-6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실행기능과 독서 시간 및 선호도와와의 관계 탐색 .....	김아란, 남민지, 최영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 .....	박지영, 진경선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이수란, 배유진, 양수진, 기쁘다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93 진빌딩 2층  
전 화 : 02-336-6672

인쇄일 : 2021년 12월 15일  
발행일 : 2021년 12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노수림(충남대학교)

편 집 위 원 : 강연욱(한림대학교)      김기연(중앙대학교)      김연수(전주대학교)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박유정(서울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송주현(California State University)  
                 신희영(전북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최유정(Harvard University)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심 사 위 원 : 강평원(취리히대학교)      권미경(유타대학교)      김민정(창원대학교)      김빛나(가천대학교)  
                 김영태(이화여자대학교)      김은영(순천향대학교)      맹세호(가톨릭대학교)      문영경(대전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다은(성균관대학교)      박은영(대구가톨릭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성지현(성균관대학교)      송경희(우석대학교)      오영희(덕성여자대학교)      윤혜경(좋은강안병원)  
                 이새별(서울교육대학교)      이수란(백석대학교)      이수진(경성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이영창(충남대학교)      진경선(성신여자대학교)      최영은(중앙대학교)      홍상황(진주교육대학교)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

---

Vol. 34, No. 4

December 15, 2021

---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ditor : Soo 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Yeonwook Kang(Hallym Univeristy)

Yenosoo Kim (Jeonju University)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ijung Seo(Jeju National University)

Seung-yeon Lee(Ewha Womans University)

Giyeon Kim(Chung-Ang University)

Eun Young Kim (Soonchunhyang University)

Youjeo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uiyoung Shin(Chonbuk National University)

Youjung Choi(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 한국심리학회지

## 발 달

제 34 권 제 4 호 / 2021. 12.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둔 초산모의 그릿과 행복감의 관계: 삶의 의미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	박주하, 배유진, 양수진 / 1
유치원 아동의 형태소인식과 한글 읽기 및 쓰기와의 관계 .....	김기예, 조증열, 김봉희 / 21
어머니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	김예진, 이동귀 / 45
유아기 일상의 실행기능 척도(REEF)의 타당화 연구 .....	권두리, 신나나 / 67
학령전기 아동의 내집단 배제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	박주향, 진경선 / 91
초등 4-6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실행기능과 독서 시간 및 선호도와의 관계 탐색 .....	김아란, 남민지, 최영은 / 109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 .....	박지영, 진경선 / 133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이수란, 배유진, 양수진, 기쁘다 / 153

## 한국발달심리학회

## 학령전기 아동의 내집단 배제에 대한 사회도덕적 평가\*

Received: October 15, 2021  
Revised: November 22,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박주향<sup>1</sup>, 진경선<sup>2</sup>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sup>1</sup>,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sup>2</sup>

교신저자: 진경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 Preschoolers' Sociomoral Evaluations of Ingroup Exclusion

E-MAIL:  
kjin@sungshin.ac.kr

Joo-hyang Park<sup>1</sup>, Kyong-sun Jin<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sup>2</sup>

© Copyright 2021.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 이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0R1G1A1014507).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ABSTRACT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들(N = 120)이 내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도덕적 평가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소 집단 과제(minimal group paradigm)를 사용하여 아동들을 최소 집단에 할당하고, 사이버볼 과제(Cyberball paradigm)를 통해 내집단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사이버볼 과제에서 아동들은 조건에 따라 내집단으로부터 배제(배제 조건)되거나 포함(포함 조건)되었다. 실험 1에서 사회적 배제 및 포함에 대한 언어적 단서가 제시되었을 때, 만 5세 아동들은 자신을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보다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실험 2에서 내집단 배제 및 포함에 대한 명시적인 언어 단서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만 4-5세 아동들은 실험 1의 아동들과 동일한 사회도덕적 평가를 하였다. 또한, 실험 2에서 배제 및 포함 조건의 아동들은 모두 자신과 이전에 함께 사이버볼을 수행한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자신을 상호작용에서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을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선호는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 학령전기, 사회적 배제, 사회도덕적 평가, 내집단, 최소 집단 과제, 사이버볼

도덕성의 근원에 대한 진화적 관점은 인간의 도덕성은 개인이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생존의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Stevens & Fiske, 1995; Trivers, 1971). 소집단으로 생존해 온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은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되고(Bowlby, 1969, 1973), 집단의 생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진화되었다(Brewer, 2007; Graham et al., 2013). 이러한 진화적 관점과 일관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 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성인과 아동들은 내집단 구성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고,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에 비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거나 도움 행동을 제공한다(Balliet et al., 2014; Brewer, 1979; Fehr et al., 2008; Killen & Turiel, 1998; Levine et al., 2005; Renno & Shutts, 2015; for reviews see 진경선, 2018; Baillargeon et al., 2015; Chalik & Rhodes, 2020).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개인은 언제나 내집단 구성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명백한 이유 없이도 집단으로부터 배제를 당하기도 한다(Gilman et al., 2013; Nansel et al., 2001; Nezlek et al., 2012; Rudert et al., 2020; Saylor et al., 2012). 또한, 집단으로부터의 배제는 비단 성인 및 청소년기 뿐 아니라 아동기, 심지어 학령전기에서도 발생한다(Crick et al., 1999; Fanger et al., 2012; Vlachou et al., 2014). 예를 들어,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4세에서 6세 아동들의 놀이를 관찰한 결과, 아동들은 명백한 배제(예, “저리가! 너는 우리 친구가 아니야.”), 암묵적 배제(예, “지금 여기 애들이 너무 많

아서 너는 우리랑 다음에 놀 수 있을 것 같아.”), 무시(예, 다른 친구가 놀이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인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함), 또는 계획적 배제(예, “애 놀지 못하게 하자, 알았지?”) 등 다양한 방식의 내집단 배제를 경험한다(Fanger et al., 2012).

그렇다면 아동들은 내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도덕적 평가를 할까? 앞서 언급한 도덕성에 대한 진화적 관점은 인간은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집단으로부터의 배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한다(Baumeister & Leary, 1995; Derfler-Rozin et al., 2010). 본 연구는 내집단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민감성이 학령전기 아동들에게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실험실 상황에서 내집단으로부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또는 포함(inclusion)을 경험하도록 한 후 내집단으로부터의 배제와 포함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아동들이 배제 경험 이후 내집단 구성원 혹은 외집단 구성원 중 누구와 상호작용하기를 선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내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배제를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아동의 사회적 평가,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상대를 얼마나 선호하는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배제를 가하는 가해자와 배제를 경험하는 피해자의 소속 집단이 서로 다르거나 혹은 불명확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들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을 아동이 관찰하도록 하는 제 3자 과제를 사용한 연구들

은 아동들이 사회적 배제를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배제를 관찰하는 경험이 아동들로 하여금 누군가와 사회적으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행동(affiliative behaviors)을 더 많이 하도록 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Marinović et al., 2017; Over & Carpenter, 2009; Song et al., 2015; Watson-Jones et al., 2014).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만 4-5세 아동들에게 모양이 다른 여러 도형들이 한 도형을 배제하는 애니메이션 영상(배제 조건) 혹은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포함되지 않은 중립적인 통제 영상(통제 조건)을 제시한 후, “그/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라고 물어 보았다(Song et al., 2015). 이때, 만 4-5세 아동들은 통제 조건보다 배제 조건에서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통제 조건의 아동들보다 자신과 친구들이 포함된 그림을 그리게 하였을 때, 자신과 친구들 간의 거리를 더 가깝게 그렸다. 유사한 절차를 사용하여 만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의 경우(Over & Carpenter, 2009),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통제 조건의 아동들에 비하여, 실험자가 장난감 상자의 불을 켜는 과정에서 목표와는 상관없이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비인과적인 행동들을 보여줄 때, 이 행동들을 더 많이 모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학령전기 아동들이 집단 소속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른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에 사회적 배제가 존재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배제를 관찰하는 경험은 아동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반응을 이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또 다른 선행 연구들은 아동들이 직접 사회적 상호작용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제1자 과제를 사용하여 학령전기 아동들을 직접 실험실 상황에서

집단이 다른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을 살펴본 바 있다(Hwang & Markson, 2020). Hwang과 Markson의 연구에서 만 3-6세 아동들은 가상의 아동 두 명과 공을 주고 받는 사이버볼(cyberball; Williams et al., 2000) 과제에 참여하였다. 이때 절반의 시행에서 아동들은 배제를 경험하였고(9회의 공 던지기 중 아동은 공을 1회 받음), 절반의 시행에서 아동들은 포함(9회의 공 던지기 중 아동은 공을 3회 받음)을 경험하였다. 각각의 공 던지기 게임 이후, 아동들은 이전에 함께 공던지기를 한 다른 아동들이 착한지 나쁜지, 이전에 함께 공던지기를 한 아동과 새로운 아동 중 누구와 다음 게임을 하고 싶은지 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들은 포함 시행에 비해 배제 시행에서 기존에 자신과 공던지기를 함께 하였던 아동들이 더 나쁘다고 평가하였고, 그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선호의 경우, 만 3-4세와는 달리, 만 5-6세 아동들은 포함 시행에 비해 배제 시행에서 자신과 이전에 공놀이를 한 대상을 상호작용의 상대로 덜 선호하였으나, 두 조건 모두에서 아동들은 새로운 상대를 이전 상대보다 유의하게 더 선호하는 새로운 편향(novelty bias)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기 아동들이 상호작용의 상대가 낯선 아동일 때, 자신을 놀이에서 배제한 상대를 포함한 상대보다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선호에서도 일반적으로 자신을 배제한 상대를 포함한 상대에 비해 덜 선호하지만, 실험 과제 상 새로운 인물이 제시되었을 때, 배제와 포함을 경험한 아동들 모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아동들은 자신과 가까운 타인 혹은 내 집단으로부터 배제를 경험한 경우에 어떠한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선호를 보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아동들이 낯선 대상으로부터 배제를 경험한 선행 연구(Hwang & Markson, 2020)와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내집단 배제를 포함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배제를 가했던 내집단보다는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사회적 선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아동들은 내집단으로부터의 배제를 포함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집단에 재연결되고자 하는 사회적 선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Derfler-Rozin et al., 2010).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만 5세 아동들이 내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사회적 배제 혹은 포함을 경험할 때, 상대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지, 또한 자신을 배제 혹은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과 새로운 외집단 구성원 중 누구와 상호작용하기를 선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상황에서 성인 및 아동의 내집단 선호 현상을 연구할 때에 널리 쓰이는 최소 집단 과제(minimal-group paradigm; Dunham et al., 2011; Tajfel et al., 1971)를 사용하여 아동들을 최소 집단에 할당하고, 아동용 사이버볼 과제(Williams et al., 2000)를 사용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내집단으로부터 배제 혹은 포함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실험 1은 먼저 아동들이 내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배제를 탐지해내고, 자신을 포함하는 내집단 구성원에 비해 자신을 배제하는 내집단 구성원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결과를 재현하고, 나아가 아동들이 자신을 배제 혹은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 그리고 자신과 특별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외집단 구성원 중 향후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대로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전기 아동들은 자신을 배제하는 내집단 구성원을 자신을 포함하는 내집단 구성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실험 1, 실험 2)

**연구문제 2:** 학령전기 아동들은 자신을 배제 혹은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 그리고 자신과 이전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외집단 구성원 중 향후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대로 누구를 더 선호하는가? (실험 2)

## 실험 1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만 5세 아동 60명(평균 연령 = 66.41개월, 표준 편차 = 3.35개월, 연령 범위 60.35개월-71.66개월, 남 27명, 여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절반의 아동( $n = 30$ )은 내집단 배제 조건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아동( $n = 30$ )은 내집단 포함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이외 연구에는 참여하였지만, 보호자 개입으로 인하여 1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참가 아동들은 전국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육아 카페 홍보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태권도장의 협조를 통하여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의 연구윤리센터(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SSWUIRB-2019-048-005).

## 자극 및 절차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화상회의(Zoom)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자는 해당 플랫폼의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연구 자극을 참가 아동에게 제시하였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 먼저 보호자와 연락을 통해 실험에 필요한 장치 및 연결 환경 등을 점검하였다. 실험 시 아동은 조용한 방에서 혼자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숫자세기 과제, 최소집단 과제, 사이버불 과제, 조작 확인 과제, 도덕적 판단 과제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 숫자 세기 과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선택 반응을 원활히 기록하기 위하여 선택지에 숫자를 부여하고, 아동에게 해당 숫자를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통상 아동의 가리키기 반응을 통해 아동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전통적인 실험 방법과는 달리, 온라인 연구의 특성상 아동의 얼굴과 상체 일부분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험 시작 전, 실험자는 아동이 본 연구의 선택지로 사용되는 숫자(1부터 5)를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예, “이건 어떤 숫자야?”). 모든 아동은 숫자 세기 과제를 통과하였다.

### 최소 집단 과제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상황에서 그림에 대한 선호 등 임의적인 정보만으로도 내집단 선호 현상을 이끄는 최소 집단 과제(Dunham et al., 2011; Tajfel et al., 1971)를 사용하여 아동들의 선호를 묻고 이에 따라 아동들을 각각 두 팀(노란팀, 초록팀) 중 한팀에 무선할당하였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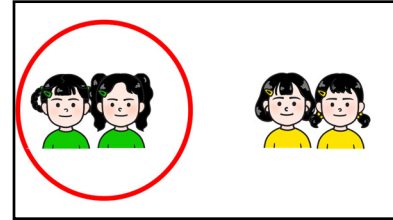


그림 1. 최소 집단 과제 장면

화면 좌우로 제시된 두 종류의 동물(고양이, 강아지), 과일(배, 사과), 그리고 놀이기구(시소, 미끄럼틀)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물어보았다(예, “고양이랑 강아지 중 어떤 게 더 좋아?”). 이후 실험자는 각 범주에서 아동과 동일한 선호를 가진 다른 아동들이 게임에 함께 참여하며, 실험 참가 아동은 그 아동들과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해준다(예, “여기 초록팀 친구들도 너처럼 고양이, 배, 그리고 시소를 좋아한다. 그래서 너도 이제부터 초록팀이야.”, 그림 1). 이때 다른 아동들은 아동과 동일한 성별의 인물로 제시되었다. 각 집단의 인물들은 얼굴 생김새가 서로 다르지만, 집단의 이름에 상응하는 색상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아동이 초록팀, 노란팀 중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는지를 역균형화함으로써, 티셔츠 색상을 제외한 캐릭터의 외양(머리 모양 등)에 대한 아동의 개인적 선호가 아동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이후 실험자는 아동이 자신의 내집단과 외집단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너는 어떤 팀이야?”, “너의 팀이 아닌 팀은 어떤 팀이야?”). 모든 아동들은 집단 확인 질문을 통과하였다.

### 사이버불 과제

사이버불 과제(Williams et al., 2000)는 실험실 상황에서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살펴보는 패러다임



으로 컴퓨터상 복수의 대상과 공을 주고받는 게임에서 타인들이 나에게 공을 주는 횟수에 따라 사회적 배제와 포함이 조작적으로 정의된다. 이 패러다임은 성인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아동 연구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e.g., Abrams et al., 2011; Hawes et al., 2012; van Beest & Williams, 2006; Watson-Jones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아동들은 두 명의 내집단 구성원과 사이버볼 과제를 수행하였다(그림 2). 화면의 하단에는 아동의 이름표와 야구 글로브가 위치하였다. 화면 상단 좌우에는 아동과 같이 사이버볼 과제를 수행할 두 명의 내집단 구성원, 그리고 그 옆에는 각각 그들의 야구 글로브가 위치하였다. 각각의 내집단 구성원들 옆에는 숫자 1과 2가 적혀있었고, 이는 아동이 공을 던질 대상을 선택할 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실험자는 공놀이 게임을 소개하며 아동의 자리를 알려주고(예, “너는 여기 보이는 초록팀 친구들과 공 던지기 게임을 할 거야. 네 자리는 여기(마우스 커서로 아동의 이름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며)인데 선생님이 이름표 위에 별을 붙여줄게”), 아동이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여기가 누구 자리라고?”). 모든 아동들은 자신의 자리를 명확히 이해하였다.

이후 실험자는 아동에게 이 ‘공 던지기 게임’에서는 아동에게 공이 왔을 때 공을 건네고 싶은 내

집단 구성원 옆에 적힌 숫자를 이야기하면, 그 숫자 옆의 인물에게 공이 던져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동은 연습 시행에 참여함으로써 게임의 규칙을 익힐 수 있었다.

연습 시행 이후 아동들은 각자 할당된 조건에 따라 배제 혹은 포함의 공놀이를 경험하였다. 내집단 배제 조건의 경우, 공이 총 15회 오고 가는 동안, 아동은 처음 한 번 공을 받았다(전체 횟수에서 두 번째). 이후에는 상단의 두 내집단 구성원들끼리만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아동은 공을 추가로 받지 못한 채 게임이 종료되었다. 즉, 배제 조건 아동들은 15회의 공던지기 중 1회만 공을 받은 것이다. 게임이 끝난 이후 연구자는 아동에게 “이 친구들이 너랑 놀고 싶지 않았나 봐.”라고 이야기하며 배제 상황에 대한 명시적인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였다.

내집단 포함 조건의 아동들은 총 15번의 공 던지기 중 5회 공을 받았다. 사이버볼 시행 이후 연구자는 아동에게 “이 친구들이 너와 놀고 싶었나 봐.”라고 이야기하며 포함 상황에 대한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였다.

### 조작 확인 과제

조작 확인 과제에서는 아동들이 배제와 포함의 경험을 인지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실험자는 화면 좌우에 엄지를 든 그림과 엄지를 내린 그림을 제시하며(그림 3), “공 던지기 게임을 하는 동안 너에게



그림 2. 사이버볼 과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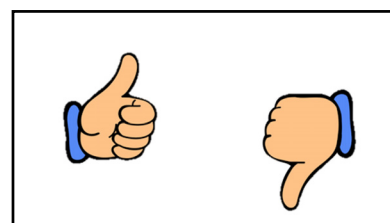


그림 3. 조작 확인 과제 장면

공이 얼마나 온 것 같아? 공이 많이 온 것 같아(엄지를 든 그림을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며), 공이 조금 온 것 같아(엄지를 내린 그림을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며)?”라고 질문하였다.

**도덕적 판단 과제**

도덕적 판단 과제에서는 아동들이 내집단으로부터의 배제 및 포함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실험자는 화면에 아동용 5점 척도(1-아주 나쁨(XX), 2-나쁨 (X), 3-나쁘지도 착하지도 않음(O), 4-착함(☆), 5-아주 착함(☆☆), 그림 4)를 제시하며 각 점수에 대해 설명한 후, 아동의 도덕적 판단에 대해 물어보았다(“같이 공 던지기 게임을 한 친구들이 얼마나 착하다고 생각해? (각 점수를 커서로 가리키며) 아주 나쁘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해, 나쁘지도 착하지도 않다고 생각해, 착하다고 생각해, 아주 착하다고 생각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실험자는 배제 조건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공 던지기 게임을 한 친구들은 진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후, 아동들이 원할 경우 다시 공 던지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때 아동들은 포함 조건의 공던지기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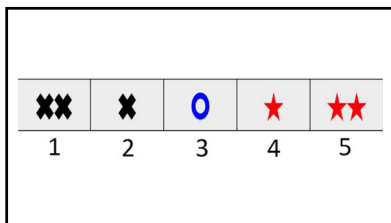


그림 4. 도덕적 판단 과제 장면

**결과 및 논의**

먼저, 조작 확인 과제를 통해 아동이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만 5세 아동들은 내집단 배제와 내집단 포함의 상황을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sher’s exact test,  $p = .000$ . 구체적으로, 내집단 배제 조건에서는 30명 중 23명이 자신에게 공이 조금 온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binomial probability test,  $p = .003$ , 내집단 포함 조건에서는 30명 중 25명이 자신에게 공이 많이 온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p = .000$ .

아동들의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도덕적 판단 분석 결과, 내집단 배제 조건의 아동들( $M = 3.23$ ,  $SD = 1.50$ )은 내집단 포함 조건의 아동들( $M = 4.53$ ,  $SD = 0.82$ )보다 공 던지기 게임을 같이 한 내집단 구성원들을 유의하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그림 5),  $F(1, 58) = 17.332$ ,  $p = .000$ . 척도의 중앙값(3)과 비교한 단일표본 t-검정 결과, 사회적 배제 조건 아동들의 도덕적 판단은 중앙값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t(29) = 0.851$ ,  $p = .402$ . 포함 조건의 아동들은 내집단 구성원들을 유의하게 착하다고 평가하였다,  $t(29) = 10.251$ ,  $p = .000$ .

실험 1 결과, 만 5세 아동들은 자신이 상호작용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간단한 사이버블 과제에서 최소 집단인 내집단으로부터의 배제와 포함을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상대에 대한 도덕적 평가 시, 자신을 상호작용에서 배제시키는 내집단 구성원을 자신을 포함하는 구성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척도의 중앙값(5점 중 3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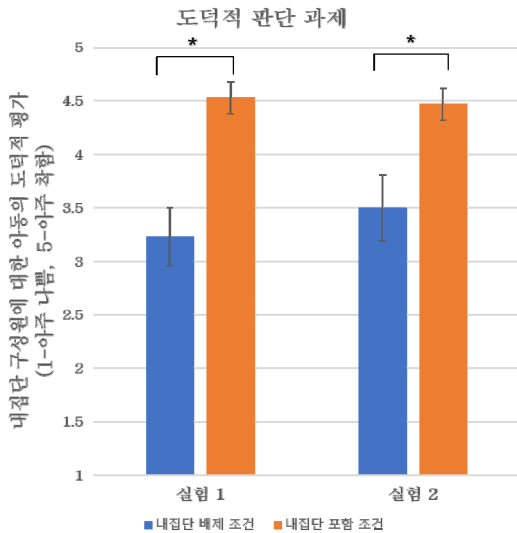


그림 5.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평가

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을 나쁘다기보다는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들이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에게 중립적인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결과는 이 시기의 아동들이 보이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내집단 편향을 반영(Dunham et al., 2011)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반면, 포함을 경험한 아동들은 상대 내집단 구성원을 도덕 판단 과제에서 중립보다 유의하게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험 2

실험 1의 결과는 만 5세 아동들이 사이버불 과제에서 자신을 놀이에서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을 자신을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험 2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실험 1의 결과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첫째, 실험 1에서 실험자는 아동이 사이버불 과제를 수행한 이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명시적인 언어 단서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 1에서 아동이 사이버불 과제를 끝낸 직후 실험자는 내집단 배제 조건의 경우, “이 친구들이 너랑 놀고 싶지 않았나 봐.”, 포함 조건의 경우, “이 친구들이 너랑 놀고 싶었나 봐.”라고 추가적인 언어 정보를 제공하였다. 실험 2에서는 이러한 언어적인 단서 없이도 아동들이 내집단 배제와 포함에 대해 각기 다른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실험 2에서는 내집단 배제와 포함에 대한 아동들의 도덕적 판단에서 나아가, 아동들이 배제와 포함을 경험한 이후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 중 누구와 상호작용을 더 하고 싶은가에 대한 사회적 선호를 살펴보았다. 상대방과 참가 아동의 관계 혹은 집단이 규정되지 않은 선행 연구(Hwang & Markson, 2020)에서 만 5-6세 아동들은 자신을 배제한 타인을 자신을 포함한 타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덜 선호하였다. 즉, 아동들은 내집단 구성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경우, 자신을 배제하거나 포함한 상대에 대해 도덕적 평가와 사회적 선호에서 일관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 2에서는 자신을 배제한 사람이 자신과 같은 집단의 구성원일 때에도 아동들이 내집단 구성원보다는 외집단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를 선호할지, 혹은 아동들은 내집단으로부터 배제되었을 경우에도 내집단에 재소속되고자 하는 욕구(Baumeister & Leary, 1995; Derfler-Rozin et al., 2010)로 인하여 여전히 내집단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를 선호할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 2에서는 아동들에게 자신과 사이버

볼을 함께 수행한 내집단 구성원, 그리고 최소 집단 과제에서 소개는 되었으나 이후 별다른 상호작용이 없었던 외집단 구성원 중 향후 상호작용의 상대로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사회적 선호의 선택지(내·외집단)들이 사회적 선호 과제 이전 최소 집단 과제에서 아동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Hwang & Markson, 2020)에서 아동들이 보였던 새로움 편향(배제와 포함과 관계없이 단순히 이전에 자신과 상호작용을 한 대상보다는 실험 절차상 새롭게 제시된 인물을 선호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실험 2는 만 4세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넓은 연령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만 4세와 만 5세 60명(평균 연령 = 61.24개월, 표준편차 = 6.47개월, 연령 범위 48.49개월-71.20개월, 남아 29명, 여아 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절반의 아동( $n = 30$ )은 내집단 배제 조건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아동( $n = 30$ )은 내집단 포함 조건에 할당되었다. 이외 연구에는 참여하였지만, 보호자 개입으로 인한 2명,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2명(예: 실험 중 참가 아동의 동생이 방으로 들어옴), 그리고 실험 중 자리를 자주 이탈하고 집중하지 못한 아동 2명 총 6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참가 아동은 연구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집하였다.

### 자극 및 절차

실험 2는 실험 1과 유사한 자극 및 절차를 사용하였으나,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실험 2에서 실험자는 실험 1과는 달리 아동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끝난 후 명시적인 언어적 단서(배제: “이 친구들이 너랑 놀고 싶지 않았나 봐.”, 포함: “이 친구들이 너랑 놀고 싶었나 봐.”)를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실험 2에서는 도덕적 판단 과제 이후, 내집단 배제 및 포함에 대한 아동의 경험이 아동의 내집단 및 외집단에 대한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사회적 선호 과제를 시행하였다. 사회적 선호 과제의 자극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사회적 선호 과제

사회적 선호 과제에서는 내집단으로부터 배제 혹은 포함을 경험한 아동들이 자신과 상호작용을 한 내집단, 그리고 자신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던 외집단 중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과제에서는 화면 중앙 좌우에 아동과 같이 공 던지기 게임을 한 내집단 구성원 중 한 명, 그리고 최소 집단 과제에서 소개된 외집단 구성원 중 한 명이 제시되었다(그림 6). 실험자는 “초록팀(노란팀) 친구와 노란팀(초록팀) 친구 중에 누가 더 좋아? 누구랑 같이 놀고 싶어?”라고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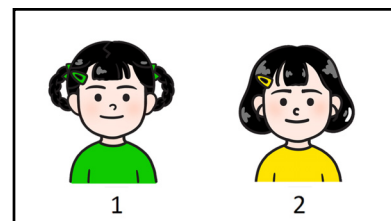


그림 6. 사회적 선호 과제 장면 예시

## 결과 및 논의

먼저, 조작 확인 과제를 통해 아동이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 4세 및 5세 아동들은 내집단으로부터의 배제 상황과 포함 상황을 구분할 수 있었다. Fisher's exact test,  $p = .000$ . 사회적 배제 조건에서는 30명 중 18명이 자신에게 공이 조금 온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p = .181$ , 사회적 포함 조건에서는 30명 중 26명이 자신에게 공이 많이 온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p = .000$ . 각 조건 내의 결과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실험 1과는 달리 실험 2의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공이 자신에게 조금 혹은 많이 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의한 수준으로 조금 왔다고 응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의 한 가지 가능성은 실험 2의 경우에는 실험 1과는 달리 실험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별다른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건 간 공이 많이 온 정도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있어 소속 조건과 배제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통해, 실험 2의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소속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적 판단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배제 조건의 아동들( $M = 3.50$ ,  $SD = 1.70$ )은 포함 조건의 아동들( $M = 4.47$ ,  $SD = 0.82$ )보다 공 던지기 게임을 같이 한 내집단 구성원들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그림 5),  $F(1, 58) = 7.90$ ,  $p = .007$ . 척도의 중앙값(3)과 비교한 단일표본 t-검정 결과, 사회적 배제 조건 아동들의 도덕적 판단은 중앙값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t(29) = 1.61$ ,  $p = .12$ . 포함 조건의 아동들은 내집단 구성원들을 중립보다 유의하게 더 착하다고 평가하였다,  $t(29) =$

9.81,  $p = .000$ . 이러한 결과는 실험 1의 결과를 재현하는 것으로, 아동들은 상호작용에 대한 명시적인 단서가 주어지지 않은 사이버블 과제에서도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을 자신을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실험 2의 경우에도, 아동들은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 중성적인 도덕적 평가를 하였고, 자신을 포함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도덕적 평가를 하였다.

내집단으로부터의 배제 혹은 포함을 경험한 이후, 아동들의 내·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기 위한 선호 과제 분석 결과(그림 7), 내집단 배제 조건에서는 30명 중 21명(70.0%)이 내집단 구성원을 선택하였으며,  $p = .021$ , 포함 조건에서는 30명 중 20명(66.7%)이 내집단 구성원을 선택하였다,  $p = .049$ . 두 조건 간 내집단 구성원을 선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sher's exact test,  $p = 1.0$ . 이러한 결과는 내집단으로부터 배제를 경험하든, 포함을 경험하든, 아동들은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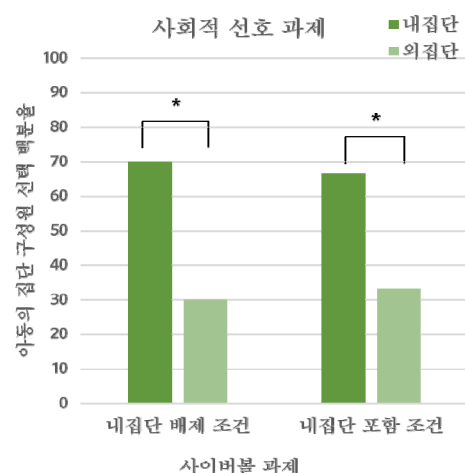


그림 7. 사회적 선호 과제에서 아동의 내·외 집단 선택 백분율

선호하며, 이후 같이 놀고 싶은 향후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조건 간 차이 없이 외집단 구성원에 비해 내집단 구성원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종합논의

본 연구는 최소 집단 과제와 사이버불 과제를 사용하여 학령전기 아동들이 자신을 상호작용에서 배제 또는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서론의 연구 문제 1에 해당하는 내집단 배제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판단에 관한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 학령전기 아동들은 자신을 포함하는 내집단 구성원에 비해 자신을 배제하는 내집단 구성원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1의 결과, 사이버불 과제 수행 이후 실험자가 배제 혹은 포함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명시적인 언어 단서를 제공할 경우(예, 배제: “이 친구들이 너랑 놀고 싶지 않았나 봐.”, 포함: “이 친구들이 너랑 놀고 싶었나 봐.”), 아동들은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을 자신을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에 대한 명시적 언어 단서가 제공되지 않은 실험 2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험 2의 경우, 실험 1과는 달리, 사회적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자신에게 공이 많이 왔는지 혹은 덜 왔는지 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덜 왔다고 반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배제 조건과 소속 조건의 아동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소속 조건의 아동들이 배제 조건의 아동들보다 공이 더 많았다고 반응했다는 사실은 실험 1과 일관적인 결과이다.

연구 문제 2에 해당하는 실험 2의 사회적 선호 과제 결과, 흥미롭게도 내집단 배제 혹은 포함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아동들의 도덕적 평가의 차이와는 달리, 만 4-5세 아동들은 내집단으로부터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는지라도 포함을 경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공놀이를 한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판단 과제에서 아동들이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을 자신을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들이 내집단이 아닌 대상들과 사이버불 과제를 수행한 선행 연구(Hwang & Markson, 2020)의 결과와 일관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와 일관적으로 Hwang과 Markson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자신을 배제한 낯선 또래 아동을 자신을 포함한 낯선 또래 아동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두 연구의 결과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경우, 도덕적 판단 과제에서 사용된 척도의 중앙값과 비교하였을 때,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을 중립적으로 평가한 반면, 포함 조건의 아동들은 자신을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Hwang과 Markson의 선행 연구의 경우, 만 5-6세 아동들은 자신을 배제한 낯선 타인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낯선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에 대해 해석해보자면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내집단 구성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편향을 가지고 있고(Dunham et al., 2011), 이에 따라 짧은 공 던지기 놀이 상황에서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보다는 중립적인 평가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피험자 간 설계로, 중립의 선택지를 포함한 5점 척도의



도덕 판단 과제를 시행한 반면, 선행 연구는 피험자 내 설계로, 중립의 선택지가 없는 이항적도(nice or mean)의 도덕 판단 과제를 시행하는 등 연구 간 방법과 절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으로부터의 배제 및 포함 상황에서의 아동의 반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실험 2의 결과는 아동들이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을 자신을 포함한 내집단 구성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배제와 포함 조건 모두에서 아동들은 향후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외집단 구성원보다 자신과 공 던지기 놀이를 함께 한 내집단 구성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낯선 타인과 사이버불 과제에서 상호작용을 하였던 선행 연구의 경우, 아동들은 자신을 배제한 타인을 자신을 포함한 타인보다 덜 선호하였다(Hwang & Markson, 2020). 그러나 내집단으로부터의 배제 혹은 포함을 경험한 본 연구의 아동들은 배제 혹은 포함 조건과 관계없이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상호작용을 함께 한 내집단 구성원을 더 선호하였다. 이는 기존의 상호작용에서 내집단 구성원이 자신을 배제하였을지라도 아동들이 외집단 구성원과의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내집단에 재연결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회적 반응에 대한 사회적 재연결 가설(social reconnection hypothesis; Baumeister & Leary, 1995)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가설은 인간이 집단에 대한 강력한 소속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사회적으로 재연결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가설과 일관적으로 성인

의 경우 실험실 상황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이후, 새로운 상대방과 실제로 만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 재연결의 가능성이 예측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 상대방에게 더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인다(Maner et al., 2007). 본 연구의 결과는 배제를 경험한 아동들이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적 맥락에서 전혀 상호작용을 해본 적이 없는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과의 재연결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아동들이 자신을 배제한 내집단 구성원과의 재연결 가능성을 외집단과의 연결 가능성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영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심리학 연구들은 어린 영아들도 내집단 구성원들이 서로를 친사회적으로 대하기를 기대함을 밝힌 바 있다(Bian et al., 2018; Jin & Baillargeon, 2017). 예를 들어, Jin과 Baillargeon의 연구에서 17개월 영아들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내집단 구성원을 도울 것을 기대하지만, 그 상대가 외집단 구성원일 경우에는 그러한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학령전기 아동들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때리는 것과 같은 위해 행동을 하였다면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의 구성원일 것이라고 추론한다(Chalik & Rhodes, 2018). 다시 말해,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내집단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외집단 구성원끼리의 상호작용에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배제 조건의 아동들은 짧은 공던지기 게임에서 배제를 경험했음지라도 이러한 배제 경험이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즉각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들이 실험실 상황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이후에도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여전히 선호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강력한 내집단 선호를 시사하는 연구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이 왜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현실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으로부터 배제를 경험한 이후에도 아동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자신을 배제한 기존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내집단 배제를 경험한 이후 내·외집단 구성원과의 향후 상호작용에 대해 아동들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아동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탐구하여 발달심리학지식의 확장뿐 아니라 현실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생각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추후 연구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비롯하여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배제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을 연구해 왔다(Hwang & Markson, 2020; Marinović et al., 2017; Over & Carpenter, 2009; Song et al., 2015; Watson-Jones et al., 2014). 한편, 성인이나 학령기 아동의 경우, 집단의 규범에 따르지 않는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내리며 배제를 하는 이른바 검은 양 효과(black sheep effect)를 보이기도 한다(Abrams et al., 2014; Marques & Paez, 1994; Shinada et al., 2004). 추후 연구에서는 배제의 대상이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학령전기 아동들이 내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추후 연구는 아동들의 사회적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집단 따돌림과 같이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에 대해 아동들이 어떠한 사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도덕 교육 분야에 현실적 기여 또한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참고문헌

- 진경선 (2018). 생애 초기 사회도덕적 추론: 영아의 내집단 원리에 대한 민감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3), 183-200.
- Abrams, D., Weick, M., Thomas, D., Colbe, H., & Franklin, K. M. (2011). On-line ostracism affects children differently from adolescents and adul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110-123.
- Abrams, D., Palmer, S. B., Rutland, A., Cameron, L., & Van de Vyver, J. (2014). Evaluations of and reasoning about normative and deviant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development of the black sheep effect. *Developmental Psychology*, 50(1), 258-270.
- Baillargeon, R., Scott, R. M., He, Z., Sloane,



- S., Setoh, P., Jin, K.-s., Wu, D., & Bian, L. (2015). Psychological and sociomoral reasoning in infancy. In M. Mikulincer, P. R. Shaver, E. Borgida, & J. A. Bargh (Eds.), *APA handbook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 Attitudes and social cognition* (pp. 79-15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lliet, D., Wu, J., & De Dreu, C. K. W. (2014). Ingroup favoritism in cooper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0*(6), 1556-1581.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ian, L., Sloane, S., & Baillargeon, R. (2018). Infants expect ingroup support to override fairness when resources are lim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5*(11), 2705-271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ume 1, Attachment*.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Basic Books.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2), 307-324.
- Brewer, M. B. (2007). The importance of being we: Human nature and intergroup relations. *American Psychologist, 62*(8), 728-738.
- Chalik, L., & Rhodes, M. (2018). Learning about social category-based obligations. *Cognitive Development, 48*, 117-124.
- Chalik, L., & Rhodes, M. (2020). Groups as moral boundarie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J. B. Benson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pp. 63-93). Elsevier Academic Press.
- Crick, N. R., Casas, J. F., & Ku, H.-C. (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376-385.
- Derfler-Rozin, R., Pillutla, M., & Thau, S. (2010). Social reconnection revisited: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risk on reciprocity, trust, and general risk-t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2*(2), 140-150.
- Dunham, Y., Baron, A. S., & Carey, S. (2011). Consequences of "minimal" group affiliation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82*(3), 793-811.
- Fanger, S. M., Frankel, L. A., & Hazen, N. (2012). Peer exclusion in preschool children's play: Naturalistic observations in a playground setting. *Merrill-Palmer Quarterly, 58*(2), 224-254.
- Fehr, E., Bernhard, H., & Rockenbach, B. (2008). Egalitarianism in young children.

- Nature*, 454(7208), 1079-1083.
- Gilman, R., Carter-Sowell, A., DeWall, C. N., Adams, R. E., & Carboni, I. (2013). Validation of the Ostracism Experience Scale for Adolesc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25(2), 319-330.
- Graham, J., Haidt, J., Koleva, S. P., Motyl, M., Iyer, R., Wojcik, S. P., & Ditto, P. H. (2013). Moral foundations theory: The pragmatic validity of moral plural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55-130.
- Hawes, D. J., Zadro, L., Fink, E., Richardson, R., O'Moore, K., Griffiths, B., Dadds, M. R., & Williams, K. D. (2012). The effects of peer ostracism on children's cognitive processe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5), 599-613.
- Hwang, H. G., & Markson, L. (2020). The development of social exclusion detection in early childhood: Awareness of social exclusion does not always align with social preference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21(2), 166-190.
- Jin, K. S., & Baillargeon, R. (2017). Infants possess an abstract expectation of ingroup suppor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31), 8199-8204.
- Killen, M., & Turiel, E. (1998).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evaluations of helping and sacrificing for othe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3), 355-375.
- Levine, M., Prosser, A., Evans, D., & Reicher, S. (2005). Identity and Emergency Intervention: How Social Group Membership and Inclusiveness of Group Boundaries Shape Helping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4), 443-453.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42-55.
- Marinović, V., Wahl, S., & Träuble, B. (2017). "Next to you"-Young children sit closer to a person following vicarious ostracism.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56, 179-185.
- Marques, J. M., & Paez, D. (1994). The 'black sheep effect': Social categorization, rejection of ingroup deviates, and perception of group variabilit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5(1), 37-68.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Simons-Morton, B., & Scheidt, P. (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JAMA: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5(16), 2094-2100.
- Nezlek, J. B., Wesselmann, E. D., Wheeler, L., & Williams, K. D. (2012). Ostracism in everyday life. *Group Dynamics: Theory,*

- Research, and Practice, 16*(2), 91-104.
- Over, H., & Carpenter, M. (2009). Priming third-party ostracism increases affiliative imitation in children. *Developmental Science, 12*(3), F1-F8.
- Renno, M. P., & Shutts, K. (2015). Children's social category-based giving and its correlates: Expectations and pre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51*(4), 533-543.
- Rudert, S. C., Janke, S., & Greifeneder, R. (2020). The experience of ostracism over the adult 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56*(10), 1999-2012.
- Saylor, C. F., Nida, S. A., Williams, K. W., Taylor, L. A., Smyth, W., Twyman, K. A., Macias, M. M., & Spratt, E. G. (2012). Bullying and Ostracism Screening Scales (BOSS):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Children's Health Care, 41*(4), 322-343.
- Shinada, M., Yamagishi, T., & Ohmura, Y. (2004). False friends are worse than bitter enemies: "Altruistic" punishment of in-group member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5*(6), 379-393.
- Song, R., Over, H., & Carpenter, M. (2015). Children draw more affiliative pictures following priming with third-party ostracism. *Developmental Psychology, 51*(6), 831-840.
- Stevens, L. E., & Fiske, S. T. (1995). Motivation and cognition in social life: A social survival perspective. *Social Cognition, 13*(3), 189-214.
- Tajfel, H., Billig, M. G., Bundy, R. 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49-178.
- Trivers, R. L. (1971).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46*(1), 35-57.
- Watson-Jones, R. E., Legare, C. H., Whitehouse, H., & Clegg, J. M. (2014). Task-specific effects of ostracism on imitative fidelity in early childhood.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5*(3), 204-210.
- Watson-Jones, R. E., Whitehouse, H., & Legare, C. H. (2016). In-group ostracism increases high-fidelity imitation in early childhood. *Psychological Science, 27*(1), 34-42.
- Williams, K. D., Cheung, C. K. T.,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48-762.
- van Beest, I., & Williams, K. D. (2006). When inclusion costs and ostracism pays, ostracism still hur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918-928.
- Vlachou, M., Andreou, E., & Botsoglou, K. (2014). Bully/victim problems among preschool children: Naturalistic observations in the classroom and on the

playground.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Annual Review*, 20(3), 329-358.

## Preschoolers' Sociomoral Evaluations of Ingroup Exclusion

Joo-hyang Park<sup>1</sup>

Kyong-sun Jin<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sup>2</sup>

We investigated preschoolers' sociomoral evaluations of ingroup exclusion in two experiments ( $N = 120$ ). Children were assigned to minimal groups using minimal group paradigm (Tajfel et al., 1971) and participated in a Cyberball paradigm (Williams et al., 2000) with their ingroup members. In the game, children experienced either ingroup exclusion (exclusion condition) or ingroup inclusion (inclusion condition). When linguistic cues about exclusion or inclusion were given (Experiment 1), 5-year-olds in the exclusion condition evaluated ingroup members more negatively than those in the inclusion condition. When there was no linguistic cue (Experiment 2), 4-5-year-olds also exhibited similar results in their moral evaluations as the children in Experiment 1. In the following social-preference task, children in both conditions preferred ingroup to outgroup memb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 can evaluate ingroup members who excluded them as negative, yet they maintain a social preference toward them.

*Keywords* : preschoolers, social exclusion, sociomoral evaluations, ingroup, minimal group paradigm, cyberball